

그리스도인 학자, 가능한가?

학문의 제한적 기능과 ‘선교적’ 만남

김동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I. 들어가는 말

강영안 교수는 “두 공동체 소속 문제로 본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이라는 논문에서 그리스도인 학자를 (1) “그리스도인이고 학자인 사람”, (2)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사람”, 그리고 (3) “기독교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 정의가 가장 합당한 정의라고 주장한다(강영안 2013, 9-11쪽). 이 주장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답변하기로 한다.

만일 두 번째 정의가 가장 합당한 정의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강영안 교수는 그리스도인 학자가 학문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에 이중적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설정하고, 그러한 이중적 정체성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 공동체의 규칙, 공동체의 목적, 그리고 공동체의 가시적 조건 등으로 이루어지는 논의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 네 가지 영역을 간단히 말해, 구성원, 규칙, 목적, 그리고 가시적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위 논문에서 강영안 교수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학자가 겪게 되는 갈등의 지점을 두 가지 부분 - 가시적 조건과 규칙 부분 - 에서만 논의하는 듯하다. 그는 가시적 조건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한 채 규칙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한다. 목적이나 구성원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는다. 다만 목적에 집중하는 부분이 누락된 것은 아마도 학문 공동체의 목적과 신앙 공동체의 그것이 공히 ‘진리의 추구’에 있다는 뜻에서 갈등의 지점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생략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규칙의 부분에서 ‘진리 추구의 규칙’을 논의함으로써 목적에 대한 논의를 대체했다고 볼 수 있다. 구성원에 대한 논의도 가시적 조건에 대한 분석에서 간단히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그의 세부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 글은 강영안 교수의 논문을 학문적으로 비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글의 형식은 그 논문이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을 논의하기 위해 제시한 프레임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은 그 프레임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에서 독립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강영안 교수의 논문 자체를 비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글이 시도하는 것은 그 논문을 통해 드러난 인식, 즉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꾀하려는 노력이 보여주고 있는 인식을 - 필자는 그러한 인식이 한국의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가지는 보통의 인식이라고 판단한다. - 분석 철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¹⁾ 이 글의 문제의식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부분에서 과연 그리스도인 학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은,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가정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결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후에는, ‘그리스도인답게 학문하기’와 관련해서 필자가 생각하는 한 가지 입장을 제안한다.

II. 가시적 조건과 구성원이 되는 과정

먼저, 간단히 언급되고 그친 부분, 공동체의 가시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 강영안 교수는 학문 공동체의 가시적 조건을 사람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혀 중립적인 공동체가 아니”(p.25)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일정한 권력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투쟁과 반목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곳”(p.26)이다. 강영안 교수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영적 투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그리스도인 학자가 자신의 신앙 고백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할지 일단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p.26)고 간단히 말하고 규칙 문제로 넘어간다.

넘어가기 전에 고민을 해 보자. 학문 공동체가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이유는 곧 세계관의 차이라는 강영안 교수의 이해를 참고해 보자. 공동체의 가시적 조건을 규정하는 세계관의 차이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고백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강영안 교수에 의하면 “초자연주의, 실재론, 반세속주의, 인격주의, 반현세주의, 비관주의, 그리고 낙관주의”(p.15) 자세를 취한다. 반면, 그는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자세는 “방법론적 무신론, 자연주의, 반실재론, 또는 사회적 구성주의”(p.17) 등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현대 대부분의 세속 학문이 취하는 기본적 입장은 기독교 세계관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에 배치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학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보자. 정치철학의 큰 주제 중 하나는 정부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다. 세속적 학문을 하

1) 솔직히 말해 필자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모두 검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강영안 교수의 논문과 이후에 언급할 신국원 교수의 논문은 그 동안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서 학문을 이해하려는 전반적 노력의 결실이며, 그 두 논문과 함께 추가로 인용될 논문들은 적어도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글들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일반적 인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는 대부분의 현대 정치철학자는 정부의 권위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성경은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이러한 성경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 정치철학자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주장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정부의 권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고, 반면 주권재민론은 학문적으로, 즉 이성적으로 논증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교회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그 정부의 권위에 복종할 테니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대학에 와서는 그 정부가 정당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므로, 즉 시민들의 선택이 적법하게 반영되지 않은 정부이니 민주주의적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정부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적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정부이지만 그래도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음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적 자세이지 학문적 자세라고 볼 수 없다.

그리스도인 정치철학자는 강의나 연구를 통해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학문이 가져야 하는 '본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가? (학문의 온전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후에 논의한다.) 신앙으로만 가능한 고백을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사실이라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학자는 찾아보기 힘들어 보인다.

가시적 조건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세계관을 이야기함으로써 가시적 조건과 구성원 두 가지 부분을 모두 논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는 신앙 고백이나 적절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신앙고백으로 충분할지 모르나 직업으로서 학문을 하는 일에는 학위 과정 외에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또 하나 있다. 학자는 대학교에 임용되지 않고서는 직업으로서 학문을 계속 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보통의 현실이다. 현재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화려한 연구 실적 또는 '확실한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학문 공동체의 가시적 현실이다. '확실한 뒷받침'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반칙이지만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학자가 되는 길이 될 수 없다. 화려한 연구실적은 어떠한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고 약간의 운도 따르면 화려한 연구실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과 상관없이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점수만 높이면 되는가? 아무리 실적이 많아도 그 내용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면, 예를 들어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주장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논의한다.) 연구실적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로써 가시적 조건과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인 학자가 적어도 현실적

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리했다. 이제 강영안 교수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논의한 부분, 규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자.

Ⅲ. 공동체의 규칙

강영안 교수는 학문 공동체의 규칙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강영안 2013, 18쪽).

진리 추구의 규칙
정직성의 규칙
증거의 규칙
진실성 추정의 규칙
공동선의 규칙

그리고 그는 신앙 공동체의 규칙은 포괄적으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요약해서 말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정리한다. 강영안 교수는 학문 공동체의 규칙이 위반되는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학문 활동이 진리 추구하고 거리가 매우 멀어졌다”고 인정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 학자가 갈등을 겪게 되는 접점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그는 에베소서 4장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명령을 따르려면 ‘진리 추구의 규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각 공동체가 추구하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잠시 옆에 내려놓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성경의 규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학문 공동체의 첫 번째 규칙인 ‘진리 추구의 규칙’을 따르게 되는가? 맞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어야만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진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삼고 학문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로 다루기로 한다.)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과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의도에 관해서는, 전혀 같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학문 공동체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실제적 사실과 신앙 공동체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이상적 당위가 서로 같등하고 충돌한다고 말하는 것은 범주 오류다. 같등은 학문과 신앙 사이에 있지 않다. 학문도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신앙도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빛나가는 것이 바로 문제이고 같등이다. 같등은 당위와 현실 사이에 있는 것이지 학문과 신앙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는 다음의 규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직성의 규칙, 증거의 규칙, 진실성 추정의 규

칙, 그리고 공동선의 규칙' 모두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 공동체가 실제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신앙 공동체가 당위적으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 물론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한다면 학문 공동체가 요구하는 규칙들을 지키면서 학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 학문 공동체가 요구하는 규칙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강영안 교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학자는 증거의 규칙을 따르는 학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27쪽). 옳다. 그러나 학자는 성육신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험주의자가 되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실사하며,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증거의 규칙'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할 수 있다는 영뚱한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공동체의 규칙 부분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그리스도인 학자는 학문 공동체가 따라야 하는 규칙들을 자신의 신앙에 근거해서 볼 때 지켜야 하며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그 규칙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문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한 가지는, 적어도 규칙 부분은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학자가 갈등을 겪는 지점이 아니며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다.

IV. 공동체의 목적

이제 각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학문 공동체가 추구하는 진리와 신앙 공동체가 요구하는 참된 것이 같든지 않고 오히려 일치한다면 두 공동체가 각각 추구하는 목적이 일치한다는 뜻인가? 목적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같은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영안 교수는 “지적 추구 자체는 언제나 참된 것으로 향한다”고 말한다(30쪽). 이 언급에는 논의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참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의 문제이고, 둘째는 '참된 것'의 내용이다.

가능성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자. 참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강영안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사물들의 진리도 그 사물들을 지으시고 일정한 질서와 구조를 부여하신 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발견하고자 하면' 결국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다. (강영안

2013, 30쪽, 강조는 추가됨.)

우리 인간은 사물들의 진리를 결국 발견할 수 있는가? 발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강영안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학자들도 이 진리 발견에 참여하며 참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부분적인 진리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기뻐하고 신자나 불신자들이 함께 그 결과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30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학자들도 그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일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된다. 여기에는 어떤 갈등도 없어 보인다.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일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갈등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좋고 설령 그렇지 않아도 학문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사물들의 진리를 발견할 수는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강영안 교수가 말하는 ‘사물들의 진리’가 의미하는 것은, 필자가 이해하기에,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와 다르지 않다. 그의 표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현실적으로 학문 활동이 진리 추구하고 거리가 매우 멀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진실이며 그래서 무엇을 따르면서 살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기 보다는... (29쪽) 지적 추구 자체는 언제나 ‘참된 것’으로 향한다... (30쪽) 그리스도인 학자는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이든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든 진리를 통해 얻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격적 존재들이다. (30쪽)

이렇게 학문을 통해 추구하는 진리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는, 신앙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힘써 발견하고자 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각 공동체가 목적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에 있다. 학문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는 사물들에 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사물들에 관한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다. 보통 어떤 것에 관한 진리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에 대한 진리, 즉 그 존재 근거와 목적을 순수하게 학문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인간 사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학문을 통해 깨닫게 될 수 있는가?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가? 자연과학이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설명력이 높은 이론을 찾아냄으로써 사물들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두고 사물들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주장하는 가운데 학문적 합의를 통해서 가장 옳거나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진리의 발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²⁾

한편, 그리스도인은 사물들의 진리를 성경에서 찾는 사람이다. 성경은 설명력이 높다거나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를 통해 주어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학문적 노력을 통해 구성해낼 수도 발견할 수도 없다. 신앙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진리가 우리에게 제시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수납하는 방법을 통해 비로소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 (적어도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문 공동체가 사물들의 사실 관계를 찾아내는 것으로서는 사물들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학문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그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달리 말해 사물들의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학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학문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각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목적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자. 학문이 말하려고 하는 진리는 무엇이며 신앙에서 말하는 참된 것은 무엇인가? 학문이 말하려고 하는 진리가 인간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면 서로의 목적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는,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모든 인간이 그 고유한 존엄성을 인정받고 적어도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마디로 ‘책임이 있는 자유’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세속적 진리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종류의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선언되고, 인간의 죄인 됨이 발각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선포되며, 그리고 성령님의 중보자 되심이 고백되는 것에서 진리를 찾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을 학문이 추구하는 목적과 상응하게 표현하자면, ‘희생을 통해 사랑하는 자유’를 체험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 추구하는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책임이 있는 자유’ 그리고 ‘희생을 통해 사랑하는 자유’, 학문과 신앙이 각각 추구하는 진리는 그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에서도 전혀 다르다. ‘책임이 있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뜻에 굴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자유를 행사하는 본인을 위한 것이다. 반면, ‘희생을 통해 사랑하는 자유’는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므로 그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웃을 위한 것이다. ‘책임이 있는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학문이 취하는 방법은 그 자유를 인간이 성취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책임과 자유의 균형을 찾기 위해 끊이지 않는 노력과 논의를 하는 것이다. 반면, ‘희생을 통해 사랑하는 자유’를

2) 강영안 교수도 우리는 (지적 활동을 통해) 명사로서 참된 것을 발견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형용사적으로 참되거나 부사적으로 참으로 옳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강영안 2010: 24-25).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이 따르는 방법은 인간은 그 자유를 스스로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자유를 보여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과 방법이 전혀 다른 자유를 추구하는 학문과 신앙은 그 목적이 전혀 일치할 수 없으며, 그렇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학문과 신앙을 대등하게 통합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학자는 불가능해 보인다.

혹자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을 한다면 학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옳다. 성경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을 근거로 인권 신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은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작정하심과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존귀하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폭로함으로써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진리를 통합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학자는 불가능해 보인다.

예를 들어, 학문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정치철학은 어떤 사회가 가장 또는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인지 탐구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현재 사회의 상태가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반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 지는 데에 있다.

이러한 대조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볼 때 학문과 신앙이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목적이 포함하는 시간의 범위가 다르다. 둘째, 학문의 목적을 추구할 때 신앙의 목적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시간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정치철학이 문제 삼는 사회적 불의와 목적으로 삼는 사회 정의는 모두 시간 안에서의 문제요 이상이다. 그러나 신앙이 가지는 시간 범위는 시간 자체를 넘어선다.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종말 이후까지 이어진다. 그러므로 영원한 시간 개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정된 시간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학문의 목적을 ‘그리스도인답게’ 추구한다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작은 물병 하나에 다 짚어 넣으려는 시도처럼 불가능해 보인다.

누군가는 영원한 시간 개념이 한정된 시간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문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고려할 부분이 생겨난다. 즉, 신앙의 목적인 구원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학문의 하나인 정치철학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여정을 가다 보면 사회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쫓아 사회에서도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될 텐데 그것이 곧 학문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꽤 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면 정치철학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철학자는 물론 사회적 불의의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키워드인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탐구하고 일구어 내는 것 자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슬픔은 사회적 불의에 있지 않다. 그것은 사회적 불의라는 결과를 빚어낸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인간의 죄성을 향해 있다. 사회적 불의는 인간의 죄성이 빚어낸 하나의 결과임과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인에 의해 사회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사회 정의의 실현 자체에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인간 사회가 보다 더 정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중요한 일은 인간 사회를 불의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의 죄성이 당신의 은혜에 의해 씻음 받고 당신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필요하다면 사회의 불의도, 원하시지는 않지만, 당신의 섭리 아래에서 허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품성을 닮아 가려고 죄성을 버리고 정의를 추구하려고 애쓸 때에 예수의 십자가 사역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실 때이다. 그러므로 비그리스도인에 의해 사회 정의가 향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영광 받으실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학문 활동을 기뻐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인 정치철학자의 학문 활동을 통해서 사회 정의가 그것 자체로서 목적이 되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결과로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 가는 것, 이러한 신앙의 목적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구하다 보면 사회는 보다 더 정의로운 곳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는 신앙 여정에서 개연적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 학자의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학문의 증진은 신앙의 여정에서 개연적으로 빛어지는 결과일 뿐이며 학문을 통해서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에서 강영안 교수가 “그리스도인의 지적 추구의 의미”라는

논문에서 밝힌 입장에 부분적으로만 동의할 수 있다. 그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입장을 따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철학을 읽고 역사를 읽고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것을 쓴 사람이 누군가, 무슨 동기로, 어떤 의도로 그렇게 쓰고 말하는가, 그 의도를 찾아내어, 참된 길로 인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내는 일이 그리스도인 학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강영안 2010, 24쪽)

그리스도인 학자를 그리스도인 학자가 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 활동과 작업을 통해 삶의 궁극 목표가 (아니, 삶의 기본 태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학자의 특징이 될 것이다. (강영안 2010, 27쪽)

두 번째 인용문에서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고백을 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어지는 “지적 활동과 작업을 통해 삶의 궁극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학자의 특징”이라는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의 학문 활동을 통해서도 삶의 궁극 목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언급된 “철학, 역사, 또는 문학이 참된 길로 인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려내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너무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철학, 역사, 또는 문학이라는 인간의 지적 활동은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러한 지적 활동이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의 원천 이심을 전제하고 삶의 궁극 목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보여준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의 지적 표현일 뿐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³⁾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삶의 목표라고 깨닫는 일은 지적 활동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신앙을 통해 깨달은 참된 진리를 학문 활동의 동기로서 전제할 수는 있으나 참된 진리를 학문 활동이 달성해야 하는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의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강영안 교수가 말했듯이 비그리스도인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학

3) 예를 들어, 양성만 교수는 “기독교 진리관 소고”라는 논문에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진리이다’라는 주장을 한다(양성만 2009). 이 주장은 학문적인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 아니다. 그것은 그 주장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듯이 신앙을 통해서 깨달은 결론이며, 그 결론을 학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업을 두고, 신앙이 추구하는 진리를 학문을 ‘통해서’ 했다는 뜻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거나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철학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철학을 통해 신앙을 하는 것이지 신앙을 바탕으로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기독교 철학도 철학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에서 철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독교적으로’ 철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문의 목적인 진리의 추구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다. 학문과 신앙이 각각 추구하는 진리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목적이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가지는 목적을 학문을 통해서 추구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V. '그리스도인답게' 학문하기

지금까지 필자는 그리스도인 학자가 불가능하거나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 가지 부분이 있다. 자연주의 세속 학자와 초자연주의 그리스도인 학자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문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성경을 통해 사물들의 진리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과 학자가 되어서 사물들에 관한 사실적 또는 규범적 관계를 찾아내는 일은 전혀 차원의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한다면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가? '학문아, 너 스스로는 영원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학문아, 네가 그 동안 추구했던 진리는 틀리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다 아니란다. 네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던 그 자만심을 버리고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단다.' 이 말은 곧 학문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타협하자면, '학문아, 너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찬양하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드러내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학문을 선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인가? 학문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펼쳐서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 나의 영성이 오늘도 죄인 됨을 고백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나의 지성이 이러한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논증하는 것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여기에서 신국원 교수가 "기독교 학문의 비전: 가능성과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기독교 학문의 자세와 목적을 정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 그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기독교 학문이라고" 정의한다(신국원 2013, 192쪽). 그가 주장하는 기독교 학문의 '실천적' 정의가 보다 더 흥미롭다.

“신앙과 학문 모두 진리를 추구하되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 숙고와 경험적 검증 그리고 합리적 논의를 거쳐 아는 것을 확립한다.” (197쪽)

학문을 하려면 “적어도 출발점에서는 이미 전통 속에 정해져 있는 학문적 실천의 형식과 목적 그리고 내부적 규범이나 원리와 탁월성에 대한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 (201쪽)

기독교 학문은 “실재에 대한 바르지 못한 통찰로 인해 왜곡된 부분에 대해 성경적 진리의 빛을 비추어 바로 잡아” 학문을 회복해야 한다. (201쪽).

기독교 학문도 인간의 복지와 삶의 향상에 봉사해야 한다. (204쪽)

학문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206쪽)

각 항목을 세부적으로 비평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본다.

신앙이 추구하는 진리를 학문이 추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신앙을 맹목적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성적 숙고, 경험적 검증, 그리고 합리적 논의를 거쳐 아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수천 년 동안 학문이 실천적으로 취해왔던 “형식과 목적 그리고 내부적 규범이나 원리”를 수용하는 것과 이성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양립 가능한가?

예를 들어, 주권재민론은 정부의 권위에 대한 왜곡된 이해이니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주권재신론을 주창해야 한다는 뜻인가?

기독교 학문을 해야지만 인간의 복지와 삶의 향상에 봉사할 수 있는가? 인간의 복지와 삶의 향상이 신앙의 목적인가?

예를 들어 해부학을 통해 인간이 가진 몸의 신비로움을 드러냄으로써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과적으로 비그리스도인 해부학자가 회심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뜻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기독교 학문의 실천적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학문도 여러 가지 인간의 활동 중에 -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등 -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영역과 달리 학문은 신앙과 통합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는 전제를 내려놓자는 뜻이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것 자체로서 궁극적인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인 학문도 기독교 신앙과 대등하게 통합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첫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 안에서 활동을 하되, 둘째, 그 한계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의 한계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과 신앙을 통합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와 신앙을 통합한다거나, 경제와 신앙의 통합, 문화와 신앙의 통합, 또는 스포츠와 신앙의 통합이라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학문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믿고 진리의 추구에서 학문의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과 의미가 허구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시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보다 덜 불의하고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생활은 생계유지와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서, 문화 활동은 창조성과 다양성의 추구를 위해서, 그리고 스포츠는 재미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학문도 그 나름대로의 역할, 즉 말하자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지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는 시간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활동은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므로 시간을 넘어서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한계를 삼아야 한다.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 활동인 학문을 통해 마치 어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자는 뜻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통해 발견하고 합의된 것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사실이며 그 안에서만 옳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학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에 학문에게 주어진 ‘본래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그러한 학문이 자신이 가진 영역의 한계를 인식한다고 해서 ‘본래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학문이 그렇게 겸허해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궁극적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비전을 내려놓는 일을 필요로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한다. 이러한 자각이 있을 때 학문과 신앙이 ‘통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선교적으로’ 학문을 만난다고 해서 학문의 피조물 됨과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들추어내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학문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 학문을 추구하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비장한 비전을 꿈꾸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식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헌신’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문이 방법론적 무신론을 전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어 있다거나 하나님의 영토가 학문의 영역에서 축소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국가 또는 나라는 세 가지 요소 -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 - 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편만하시며 처음부터 모든 세상은 학문을 포함해 하나님의 영토이다. 하나님의 백성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 주권과 영토를 인정하고 백성 됨을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라는 영역이 그 분의 영토임을 고백하며 나의 생각, 마음, 그리고 행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학문을 바라본다면 학문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고 그 본래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변혁되고 바뀌어야 하는 대상은 학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렇게 변화된 내가 학문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선교적으로' 학문을 만나는 것이며 학문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창조세계 구속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은 자'라는 진술은 (허만근 1996: 62, 강영안 2000: 15) 틀리지 않다. 그러나 '학문은 그 창조세계의 일부이므로 학문을 구속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학자의 자세'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은 마치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학자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학문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학문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다. 성경적 정의론이 인본주의 정의론을 학문적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죄인의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죄인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죄인의 생각 문제는 죄인됨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포함된다는 뜻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며, 생각 문제의 해결은 더 나아가 학문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 실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이라는 창조세계를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그리스도인이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학문이라는 선교지에 나가서 학문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학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학문하는 삶을 사는 과정이다.

방법론적 무신론, 자연주의, 반실재론, 또는 사회적 구성주의 등 반성경적 세계관에 빠져있는 학문을 구해내야 한다는 비장한 사명감은 세계관 논의의 한 가지 문제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그런 비장한 사명감은 반성경적 세계관에 빠져있는 학문이라는 대상과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한 학자라는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학문과 학자를 이원화시키고 학문을 변혁의 대상으로 삼을 뿐 학문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학문하는 일은 소홀히 하게 만든다. 즉, 학문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자세는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할 뿐, 말하자면 정치철학이라는 학문을 '기독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치철학이 반성경적 세계관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는 학문을 할 뿐, 실제로 정치철학 자체를 기독교적으로 하는 일은 소홀히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기독교인이면서도 학문이라는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새롭게 필요로 한다는 아이러니를 자아낸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인 학자는 학문을 바라보기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새로 맞춰서 쓸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이 이미 기독교인이라면 학문이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학문을 하면 된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입었다면 자신이 학문이라는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철학을 한다는 것은 정치철학으로는 그 어떤 성경적 진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주 잘 해보야 시간 안에서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아니면 매우 한시적으로만 유의미한 정의론이나 정치이론을 학문적으로 구성해내는 일이다. 그것은 사회정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일조하고 공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회정의의 증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동기가 인간의 이성적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 사역에 의존하여 새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신론을 전제하는 철학이 있다고 하자. 기독교적으로 철학을 한다면 흔히 무신론에 맞서서 이론적으로 논박을 해서 그 무신론자가 자신의 이론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세는 기독교인으로서 철학을 하는 하나의 자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즉, 무신론이 논박되어 무신론을 전제로 하는 철학의 조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철학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신론을 논박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어도 두 가지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 우선, 하나님의 주권이 무신론 철학의 영역에는 아직 선포되지 않았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오해다. 물론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철학적 입장으로서는 반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입장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롬 1: 28) 빚어진 일 중에 하나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이 무신론이라는 뜻이다. 로마서를 다시 인용하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좇아 나타난” (롬 1: 18) 결과 중 하나가 무신론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경건치 않음이라는 죄가 빚어낸 하나의 결과로서 무신론이라는 철학적 입장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내어버려 두신 결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무신론이라는 철학적 입장 때문에 기독교인 철학자가 일종의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무신론 철학의 입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신론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반성경적이지요 경건치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하며 논박되어야 한다. 그 일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 철학자는 무신론과의 학문적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다시 말해, 무신론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기독교적 철학의 목적은 아니다. 기독교적 철학의 목적은 자기 자신과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식하고 무신론을 반박하는 것이다. 반박해서 무신론을 거꾸러뜨려야 비로소 기독교적 철학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을 반박할 때 바른 동기를 갖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철학자는 결과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무신론이 조금이라도 반박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되고 그래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적 사명감을 조금이라도 다하고 있다는 잘못된 개념의 선교 콤플렉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무신론 철학이 조금이나마 축소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무신론 철학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오해에서도 비롯된다. 그 오해는, 무신론 철학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영토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 모든 곳,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상관없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겠지만 유신론 철학 입장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기준은 철학적 입장이 아니라 그 입장을 가지는 철학자의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체성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은 그 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이다. 따라서, 무신론 철학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토가 아니니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다.

무신론 문제를 결론짓자면, 무신론 철학 논박에 '선교적'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그리스도인 학자는 그 일에 정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신앙적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학문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즉,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 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실패해도, 비록 무신론 철학이 단번에 논박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경제적인 성공을 하지 않아도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반성경적인 무신론 철학이 논박되지 않아도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든 무신론 철학을 논박하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성공을 일구어내야 신앙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무신론 철학을 반드시 반박해내야 비로소 신앙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성공을 반드시 일구어낼 필요가 없듯이 무신론을 반드시 반박해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심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경제적 성공을 추구할 수 있다. 단, ‘그리스도인답게’ 말이다. 마찬가지로 무신론 철학의 반박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그리스도인 학자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그리스도인답게’ 말이다.

마지막으로, 학문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교적으로’ 학문을 하며, 신앙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학문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학자의 자세이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정치철학자는 정부의 권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먼저 로마서(13:1)에서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개역개정)

Let every soul be subject unto the higher powers. For there is no power but of God. the powers that be are ordained by God. (KJV)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정하신 바라’ 또는 ‘ordained’이다. 이 동사는 ‘세워주신 바라’ (새번역) 또는 ‘established’ (NIV)로 번역되기도 했다. 가장 권위 있다고 알려진 킹제임스 버전의 ‘ordain’이라는 단어는 보통 성직자를 임명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그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될 때에는 ‘예정하다’ 또는 ‘운명 짓다’의 뜻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은 그것이 예정되고 운명 지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아래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정부가 하나님의 섭리아래 세워진 것이라면 남한 정부도, 미국 정부도, 그리고 북한 정부도 마찬가지다. 남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똑같이 북한 정부의 권위도 인정하고 북한 주민들은 그것에 복종하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만일 교회에서 대표기도 시간에 남한 정부의 권위는 인정/복종하고 북한 정부는 무너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며 자신의 체제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의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비롭게도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현재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다음 선거를 통하거나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 세우는 정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진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정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도, 그것이 민주적이든 독재적이든,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선하든 악하든, 그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워진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학자는 학자로서 정부의 권위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때로는 이성적으

로, 때로는 합리적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가장 옳다고 판단되는 정치체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권위의 합법성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보다 추상적으로는 정부의 권위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사회 계약론자들의 생각을 따라서 주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의 섭리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상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이 선택을 해서 어떤 정부가 세워져도 그 권위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 정권이 세습에 의해 독재 정부를 이어간다고 해도 그 권위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정치철학자가 새로운 정권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선택을 존중하는 정권이 옳은 정권이라고 논의하는 것과 모든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중적인 자세가 아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것을 존중하는 정권을 세우는 일이 마치 신앙의 목적이거나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체제라고 (‘일시적으로 또는 당분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체제인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체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로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체제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기준은 정부가 민주적이냐 독재적이냐, 좌파냐 우파냐 하는 데에 있지 않다. 누군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민주주의가 보다 더 성경적으로 옳은 정치체제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할 수 있거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통해 자라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 보다 더 뿌리 깊고 강하게 성숙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우리는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학자로서 우리는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절대적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학자는 민주주의의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져서가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는 덕목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학자는 보다 더 정의로운 정치체제를 연구해야 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전제 하에 정의를 추구하다보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학자로서 정의를 연구하는 일은 그런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그분을 닮아 가려고 지적으로 애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로마서의 기록대로 모든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복종하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다. 동시에 주권재민에 기반을 두는 민주주의가 독재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민주주의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치적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판단되고 합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학자도 세속 학자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속 학자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는 신앙의 목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할 뿐이다. 그리스도인 정치철학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의란 무엇인가에 천착하지 않는다. 다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여정 속에서 학자로서 지적 활동을 통해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 탐구할 뿐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 중 하나로서 사회 정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철학을 하는 모습이다. 사회 정의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학자도 비그리스도인 학자와 함께 사회 정의를 탐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학문을 한다는 것의 고유한 의미는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서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고 신앙적으로 가지는 더 큰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사회 정의를 탐구하는 것에 있다.

VI. 나오는 말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거나 성경에서 어떤 자연과학이나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는가? 그런 비전을 꿈꾸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지식과 통찰력을 주셔서 학문을 잘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함으로써 학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학문 공동체에서 비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전도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했다고 이해하지 않았는가? 어떤 과학적 사실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다면서 기독교적 과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보호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지는 않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추구라는 학문의 목적이 학문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학문은 그 가치와 의미가 시간의 한계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리 추구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영역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학문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작업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이다. 즉, 학문의 세속적 본질을 부인함으로써 학문 본래 기능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 학문의 고유 목적에 충실하고 학문이 요구하는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양심적인 비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일 진

리의 추구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학문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이 옳지도 않다. 그것은 학문의 고유한 목적과 규칙에 충실한 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변별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인 학자는 진리의 추구를 학문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사실의 발견이나 중요한 가치에 대한 학문적 합의를 위해 학문을 할 뿐이다. 그러한 발견이나 합의를 통해서 국가나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나 인류의 발전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 학문의 한계를 인식하고 학문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학문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길이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또한 가야 하는 길이다.

학문의 한계 안에서 의미 있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학자는 비그리스도인답게 함께 학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의 한계를 인식하고 학문을 ‘선교적으로’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학문을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학문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교적으로’ 학문을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영안 교수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사람’이 가장 합당한 그리스도인 학자라는 주장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글이 주장한 것이 옳다면, 그런 전제는 틀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학문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교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은 이 글에서 설명한 뜻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신앙과 ‘무관하게’ 학문을 하는 사람은 감히 말하건대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거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학문을 포함해 전 우주를 다 포괄한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학자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 (2000). “한국 기독교 철학의 요청과 과제.” 『신앙과 학문』 . 5(1). 7-29.
- 강영안 (2010). “그리스도인의 지적 추구의 의미.” 『신앙과 학문』 . 15(1). 7-30.
- 강영안 (2013). “두 공동체 소속문제로 본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 『신앙과 학문』 . 18(3). 7-35.
- 신국원 (2013). “기독교 학문의 비전 - 가능성과 필요성.” 『신앙과 학문』 . 18(4). 189-212.
- 양성만 (2009). “기독교 진리관 소고.” 『신앙과 학문』 . 14(1). 175-216.
- 허만근 (1996). “창조와 학문활동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 『신앙과 학문』 . 2(1). 51-63.